

광주·전남 전법단 지역단위 첫 출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스님)이 포교역량 강화와 취약 분야 범회지원을 위해 전법단을 출범한 이후 분야별 창립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조계종 광주·전남지역 전법단이 6일 오후4시 광주 무각사에서 출범한다. 특히 이번 광주·전남지역 전법단 출범은 병원, 경찰, 군 등 분야별 전법단 출범에 이어 지역 최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전남지역 전법단은 지난 6월16일부터 4차례 회의를 갖고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광주 김상사 주지 도제스님과 나주 심항사 주지 원광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의지를 모았다. 포교원도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전법단 창립에 힘을 보탤다. 향후 전법단은 △어린이·청소년과 대불연 △병원, 교도소, 군법당 △다문화, 직장직능 등 활동범위를 세분화해 광주전남 지역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6일 열리는 출범식은 전법단기 전달, 지도법사단 및 전법지원단 위촉, 전도선언 합송 등으로 진행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부정선거 차단’ 촉구 불교단체 기자회견

10월28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선거를 앞두고 불교단체와 중앙총회위원들이 종단자정기능 강화와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들과 진화·주경·자현·우석·일문·무자·정산·정법스님 등 중앙총회위원 스님들은 지난 9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소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승려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입장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부정선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담화문 발표 △각 교구별 공명선거감시단 파견 △고발센터 운영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불교 세계화 중심으로 선다

현조스님 ‘조계종 국제선센터’ 운영계획 발표

외국인 소통 위해 동시통역 시스템 등 갖춰 “서울 서남권 포교 활성화…수행 포교 매진”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오는 11월15일 개원을 앞두고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도량 △서울 서남권 포교의 중심도량 △교육과 문화, 수행의 정법도량 구현 등 3대 운영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 계획안도 세웠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게 국제선센터의 설립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서남부 지역의 거점사찰로

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수도권 포교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조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선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참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방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전9시부터 11시까지,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일상정진이 하루 3차례 진행되며, 회원 가운데 희망



현조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따로 꾸리지 않고 내외국인이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참선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현조스님은 “외국인들과의 소통과 유대를 촉진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웹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 등의 주요 프로그램도 국제선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도심포교 거점 사찰로서의 기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조스님은 “국제선센터 반경 1km 내에 무려 8곳의 중대형 교회가 있다”며 “지지부진한 서울 서남부의 포교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직 공식 개원 전이지만 오는 10월 오전 10시30분 첫 일우법회를 열고 제1기 불교기본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의지가 대단하다. 스님은 “마음의 휴식이 목마른 서울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올바른 수행생활을 도와줄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현대화로 신도 확대 및 불교 홍보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인사고과제 도입 후 첫 주지 임명

총무원장 자승스님 ‘어린이법당 운영’ 당부 학도암 법보스님…자비기금 1000만원 보시



자승스님 총무원장

직할교구 공찰을 대상으로 한 인사고과제 시행 후 첫 주지 임명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월30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도암 주지에 법보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고과제 도입 후 첫(주지) 임명”이라면서 “새로운(임기) 4년을 열심히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자는 의미에서 주지 인사고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인사고과

하기도 했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山)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내에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어린이 법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학도암 주지 법보스님은 “총무

원장 스님의 말씀을 잘 알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학도암 주지 법보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군포교가 중요하니 500만원은 군법당 건립 기금으로, 300만원은 북한수해 돕기 성금으로, 나머지는 아름다운동행 자비기금으로 사용하는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범종단 ‘북한 수해 피해 지원’ 결의

종단협, 태극문양과 연꽃 디자인 ‘휘장’ 확정

불교계가 범종단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에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9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54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북한 수해 피해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15일까지 각 종단별로 배정된 금액이나 물품을 종단협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으며, 모금액과 물품은 10월말까지 인천항을 통해 북한의 남포항으

로 보내기로 했다. 북한 수해 피해 지원 물품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 지정기탁하기로 했고, 지원물품은 (남한)정부 및 조불련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수해 피해 돕기 사업은 조계종 1500만원, 태고종·천태종·진각종 각각 500만 원 등 모두 27개 종단에서 61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협을 상징하는 휘장(CI)을 확정 했다. 인천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가 개발



종단협 상징 휘장(CI). 한 종단협 휘장은 태극 문양과 연꽃을 소재로 디자인했고, 한국적인 파

스텔 톤의 색상을 넣었다. 종단협은 지난 7월9일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3종류의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이후 3종의 시안을 추가해 오늘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이밖에도 △임원 변경의 건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대한 건 △회비 체납종단에 대한 논의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사회에는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흥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상임이사 영담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혜경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캄보디아 승왕 조계종 예방

캄보디아 승왕 텡퐁스님이 지난 9월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텡퐁스님(사진 오른쪽)은 “국왕과 총리가 총무원장 스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양국 불교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텡퐁스님은 “한국으로 시집은 캄보디아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국이 혈연관계로 연결될만큼 가까워졌으니,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면서 다문화가정에 한국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말씀하신 내용을 종단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불교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남방불교와 교류하고, 나아가 불교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뉴욕을 넘어 파리, 런던, 베이징으로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9월20일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열린 ‘한국 생활음식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채식 위주의 생활음식을 맛 본 뉴요커들은 ‘윈더풀’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700년 전통을 이어 온 한국 생활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육류 위주의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서양인들이 이제는 웰빙과 건강을 지향하는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생활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은 희망적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연간 4조 달러에 이른다. 우리 돈으로 4546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자동차의 2.5배, IT의 5.6배, 반도체의 15배에 해당한다. 황금알을 낳는 산업임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일식의 세계화를 추진했고, ‘스시’를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음식으로 만들었다. 일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세계 일식예호가

를 12억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일식인구 배증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도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2013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식품산업 투자펀드 조성을 계획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채식 위주의 생활음식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호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단은 한국 생활음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전통을 계승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뉴욕에 머물지 말고 파리, 런던, 로마, 베이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생활음식’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승가복지의 실현은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승가복지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공청회는 종단의 승가복지 TFT에서 마련한 승가복지 각 영역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제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인 만큼 관심있는 중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정 : 불기2554(2010)년 10월 11일(월 음 9. 4) 오후 2시~5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발 제 : 승가복지 연금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 - 고경환(보건사회연구원) 승가복지 의료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 - 이규욱(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승가복지 요양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 - 이용권(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승가복지제도 법제화 방안 - 박재현(월정사 총무실장)